

광주서도 '옥텟' 공연 본다

(8명 편성 밴드·연주)

'광주스트링콰르옥텟앙상블' 창단연주회

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등 연주

최근 '광주스트링콰르옥텟앙상블'이 창단했다. '옥텟'이라니 이름부터 생소하다. 실내악 작품은 3명 또는 4명이 연주하는 트리오와 콰르텟의 구성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옥텟'은 8명으로 편성된 밴드 또는 그 연주를 가리키는데 광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구성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스트링콰르옥텟앙상블은 바이올린 최수아·나지윤·임리경, 비올라 조수영, 첼로 안미영 등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이뤄졌으며, 공연에 따라 연주자들의 구성이 달라진다. 단체 이름을 콰르옥텟으로 정한 이유는 콰르텟에서 옥텟까지 다채로운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안미영 단원은 "우연한 계기로 나와 최수아, 임리경, 조수영 네명이 모이게 됐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음악으로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그 결과물로 광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옥텟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객들이 꼭 서둘러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8명을 아우르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관객과 만나고 싶습니다. 현악사중주 곡이라도 8명에서 더블편성으로 연주한다면 관객들은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편곡으로 무대에 설 예정이에요."

이들은 광주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뿐 아니라 '문화적 상생'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 첫번째 시작으로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연다.

이들은 이날 바이올린 김용상, 비올라 권정민, 첼로 김태은과 함께 여덟명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죽음과 소녀'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실내악 레퍼토리의 기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서정적인 연주에서 강렬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극적인 전환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수아·임리경·조수영·안미영이 브로딘 '현악사중주 2번'을 연주하



나지윤, 조수영, 임리경, 최수아, 안미영. (왼쪽부터)



김용상

김태은

권정민

며 소프라노 이지연과 함께 에릭 사티 '나는 당신을 원해요', 엔니오 모리코네 '환상속에서'도 들려준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62-653-500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민연극 라이어 II'가 17~2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극단코스모스 제공>

연말 지친 당신을 위로합니다

5일 '김창옥 토크콘서트'

17~26일 '라이어 II'

락뮤지컬 '프리즌', 김창옥 토크콘서트, '국민연극 라이어'... 극단코스모스(대표 박석인)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락뮤지컬 '프리즌'이 오는 4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킥투 정찬우가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 록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탄생 비화를 각색해 만든 작품으로 은행을 털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세 청년이 교도소에서 꿈 잃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다. 공연에서는 마치 락 밴드의 콘서트 현장에 온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어 5일 오후 2시~6시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는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2'가 펼쳐진다.

'지친 당신을 위로하는 힐링 강연쇼'라는 타이틀로 2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번 공연의 키워드는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생의 핵심을 짚는다. tvN 시사교양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방송에 출연하면서 주목받은 김창옥은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해왔다. 현재는 김창옥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전하고 있다.

이어 17~26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공연장에서는 '국민연극 라이어 II' 공연이 펼쳐진다. '라이어'는 제목처럼 속고 속이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이번에 선보일 2탄은 은밀한 두 집 살림을 즐기던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의 위기를 다룬다. 문의나 예매는 1688-3820으로 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전남문학상에 김남현·김영천·임호상 시인, 장여옥 수필가

올해의 전남문학상에 김남현·김영천·임호상 시인과 장여옥 수필가가 선정됐다.

전남문인협회(회장 김용국·전남문협)는 최근 심사회를 열어 올해의 수상자 3명을 결정했다. 전남문학상은 매년 우수한 작품으로 지역 문학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남문협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을 상대로 수여된다.

전남문협과 강진시지부 이사인 김남현 시인은 작품집 '탐진강 연가' 외 다수 작품을 펴냈다. 김영천 시인은 전남문협 목포지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다' 등을 출간했다. 임호상 시인은 전남문협 여수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시집 '조금새끼로 운다' 등을 발간했다. 모란초문학동인회 회장을 역임한 장여옥 수필가는 '지금 가장 좋을 때'를 펴냈다. 아울러 전남문협은 문학 지방생애를 대상으로 개최한 전남백일장 장원에 유소



김남현 시인



김영천 시인



임호상 시인



장여옥 수필가

희 수필가와 김은숙 시인을 선정하는 등 모두 13명 문인에게 상을 수여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오동도로 61-7)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4643-4560. /박성천 기자 skypark@

ACC, 아시아문화지도 '라마야나의 길' 전

한두 문화의 대표 문화유산들을 미디어아트와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선)이 문화정보원 라이브리파크 상설전시관에서 진행중인 아시아문화지도 '라마야나의 길'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장대한 서사와 함께 축적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등을 가상현실을 활용해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ACC는 아시아적 세계관이 반영된 아시아의 대표 서사시를 연구·발굴해 6개의 '아시아의 이야기길'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인도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전파된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낸 것.

ACC는 미디어아트 영상과 증강현실 체험, 가상현실을 활용한 자료검색 등으로 전시를 구성했으며 관람객이 아시아문화자원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상설전시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슈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with 발레'가 오는 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슈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with 발레

4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박주현) '슈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with 발레'가 오는 4일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슈만의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슈만의 선물' 무대는 'Kinderszenen Op.15' (어린이 정경)으로 시작한다. 이 곡은 슈만의 중심을 담은 13개의 소곡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주시립발레단과의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

일 예정이다. 이어 감미롭고 서정적인 '3 Romanzen Op.94' (3개의 로망스)를 플루티스트 김보람과 함께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선물' 무대는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으로 꾸며진다. 'Christmas Dream' (크리스마스의 꿈), 'Winter Wonderland' (겨울 동화나라), 'Feliz Navidad' (메리 크리스마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등을 팀파니, 드럼, 솔레이벨, 글로켄슈필 등 다양한 타악기와 함께 들려준다. 전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케팅링크 예매.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